제12강 잭슨 폴록 : 사물의 신경회로 Ⅰ

(1교시-0820-01)

◎ 완전한 평면성을 향한 역동적인 원시적 이미지로의 초월

※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1912-1956) : 추상표현주의[1]의 핵심적 인물. 폴록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 미국 회화의 독자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윌렘 드 쿠닝(Wilem de Kooning), 바넷 뉴먼(Barnett Newman), 마크 로드코(Mark Rothko), 클리포스 스틸(Clyford Still) 등과 함께 추상표현주의(Astract Expressionism)를 주도했다.

▶ 폴록회화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개념들

- 액션 페인팅(action painting[2])
- 올 오버 페인팅(all-over painting) : 배경과 형상이 따로 구분되지 않는 것.
- 드리핑(dripping) 기법 (흩뿌리기)
- 평면성

(2교시-0820-02)

▶ 폴록의 생애

- 1929년 뉴욕으로 가 아트 스튜던트 리그라는 학교에 입학, 토머스 하트 밴튼의 지도를 받게 된다. 폴록은 그로부터 '선묘의 중요성'을 배웠으나 그의 지방주의(Localism)에는 반발하였다.

- 빈곤과 급성 알콜 중독으로 인해 고통 받음.
→ 핸더슨의 진단 : 난폭하고 자폐적이고 내향적이었으며 단순한 정신분열증이 아니라 샤먼의 혼수상태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정신상태에 비견될 수 있다.[3]

- 원시적이고 신화적인 이미지들에 대한 관심
→ **존 그래험[4], 『미술의 체계와 방법론』**(1937)에서 영감을 받음
"의식적인 마음에 무의식의 강렬한 사건을 제공하기 위해 (…) 원초적인 과거와 접촉하고 (적극적으로는 미술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미술 작품을 사색함으로써) 무의식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라."(칼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과 회화를 연결하는 중요한 함축을 담고 있다.)

---

1) 세계2차대전이후 많은 예술가들이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확립된 화파. 특히 호프만의 영향이 크다. 윌렘 드 쿠닝, 바넷 뉴먼 등이 그 중심에 있었으며, 매우 극적이고 급격, 격렬한 특성을 지닌다. 캔버스를 벗어난 미술이 풍미하던 시절 등장했다는 점에서 회화시대의 마지막 지점이라 볼 수 있다.

2) 비평가 로젠버그가 사용한 용어. 추상표현주의 회화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3) 후지에다 데루오, 『잭슨 폴록』(박용숙 역, 열화당, 1985) p.86,87

4) 폴록의 친구이자 미술 논쟁가.

www.artnstudy.com

⇒ 밴튼을 비롯한 당시 미국 화가들을 탈피.

- 동양적이고 신비적인 심리학, 자동기술법(automatism)에 심취.

* 그림 2-1 <작품31>

▶ 폴록의 40년대 초기 회화

- 본격적인 작품 활동 시작.
- 신화적인 이미지들을 형상화한 작품들.
→ 기존의 코드화된 사회적인 질서에 의거한 상투적인 눈을 통해서는 예술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 ("예술작품이 아닌 예술작품을 만들고 싶다.")
→ 아쉴 고르키(Ashile Gorhy, 1904-1948)의 영향 : 평면 위에 이미지의 여러 측면들이 어지럽게 그러나 조형적인 질서를 이루면서 펼쳐져 있는 방식.

(3교시-0820-03)

* 그림 3-1 <스테노그래픽> (1942)

- 즉흥적
- 피카소의 다중시선의 영향 (좀 더 극화된 표현)
- 역동적 (폴록 그림의 핵심적 특징)

* 그림 3-2 <달-여인> / 그림 3-3 <남-여> (1942)

- 신화적 이미지(주술적)
- 추상적, 문학적 제목
- 색채감(세잔의 영향)

* 그림 3-4 <암늑대> (1943)

- 매우 역동적
- 이중성
- 이중섭 화백의 <소>와 비교 : 좀더 추상화 됨. 로마의 건국 신화를 모티브로 함.
- 배경과 형상의 구분이 잘 안 간다. → All Over Painting의 전조

* 그림 3-5 <파랑-모비딕>

- 아쉴 고르키의 그림을 연상케 함.
- 푸른 바탕의 배경에 유기체적인 드로잉과 색채들이 분산되어 격렬한 힘을 발휘.

www.artnstudy.com

* 그림 3-6 <비밀의 수호자들> (1943)

- 해체
- 신화적 비밀의 표현

⇒ 40년대 초반 그림들에서 보이는 특징

① 사물들이 지니고 있는 주술적인 힘을 드러냄. (사물 자체가 해체되면서 생물이 되어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는 곳을 찾아감.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열리는 사물의 심장을 찾음. 즉, 사회화된 눈빛에는 은폐되어 있는 사물의 원시적인 영역을 찾은 것.)

② 에너지적인 힘으로 무장된 두터운 평면을 추구. (완전한 평면성은 평면 자체가 두툼한 두께, 즉 역동적인 에너지로 넘쳐나는 데서 성립되는 두툼한 두께를 지닐 때 성립한다.)

회화사의 흐름

고체->액체->기체적

www.artnstudy.com